DCB 염산염 고속 성장

1/4분기 수출 19.2% 증가 … 엔고로 가격경쟁 유리

Orange · Yellow · Red계 안료제조에 사용되는 3.3.-Dichrolobenzidine 염산염의 수출이 지난 1/4분기에 큰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.
3.3.-Dichrolobenzidine 염산염을 독점 생산하고 있는 한국협화공업(대표:김재룡)에 따르면 지난 1/4분기에 수출이 물량기준 19.2% 증가한 1948KG, 금액기준 29.9% 증가한 2만5321달러를 기록했으며 2/4분기에도 이러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이러한 전망은 세계시장에 3.3.-Dichrolobenzidine 염산염을 공급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, 미국, 한국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엔고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.

DCB염산염 수출입 현황 (단위 : KG, 1000달러)

구 분	1993		1994		증가율	
	수 량	금 액	수 량	금 액	수 량	금 액
수 출	183,146	1,948	218,254	2,531	19.16	29.92
수 입	15,600	196	30,312	290	94.30	47.95

또 그동안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3.3.-Dichrolo-benzidine 염산염을 생산해오던 EU국가들이 벤지딘 사용금지 규제와 맞물려 생산량을 줄이고 감소물량을 수입에 의존해가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.
이에따라 한국협화공업도 올해들어 생산능력을 2800톤에서 4000톤으로 증설한 것으로 알려졌다.
현재 전체생산량의 75%를 직접 또는 Local로 수출하고 있으며 15%를 국내 안료 생산회사인 대한스위스화학,우성화학,욱성화학 등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국가별 수출량을 살표보면 EU가 전체물량의 51%인 11만2567KG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독일이 27%, 6만KG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의 유럽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.
국내시장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물량의 30%정도이고, 80%정도는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한편 3.3.-Dichrolobenzidine 염산염의 원료인 ONCB(o-Nitrochrolobenzen)는 국내 한화에서도 생산하고 있어 원료수급이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

<화학저널 1994/6/6>